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국내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시장은 2010년 광학용 PE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포장용은 공급 감소로 수급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익성이 양호했으나, 2011년 들어서는 원료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MEG(Monoethylene Glycol)가 사상 초유의 강세를 지속하면서 적자가 불가피했다.

2011년에도 포장용은 신규투자 기피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광학용은 삼성과 LG가 LED(Light Emitting Diode) TV 생산비중을 57%까지 높이는 등 LCD(Liquid Crystal Display)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로 이어졌다.

국내외 PET필름 생산기업들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증설 경쟁에 나섰고 2011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증설물량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다소 완화되었다.

여기에 3/4분기부터 태양광 시장이 얼어붙어 수요 감소로 이어져 2012년에는 원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PET필름 생산능력은 SKC 15만톤, 코오롱인더스트리 10만톤, 효성 1만5000-2만톤, 화승인더스트리 2만톤, 도레이(Toray)첨단소재 12만톤으로 총 40만톤에 달하고 있다.

국내 PET필름 시장은 2010년 내내 공급부족이 계속됐다.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들이 광학용 PET필름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포장용은 제한적으로 공급에 나섰고, 해외의 포장용 PET필름 생산기업들도 노후화된 플랜트의 가동을 중지하면서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포장용 PET필름은 코오롱, SKC, 도레이 등 메이저 3사가 광학용 시장에 집중하면서 제한적으로 공급하는데 그쳤고 세계적으로도 포장용 PET필름 생산기업들이 가동중단을 선언하면서 전체 공급량이 줄어든 반면 수요는 연평균 4~5% 수준의 신장세를 유지해 전체적으로 공급부족이 계속됐다.

광학용과 태양광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PET필름 수요비중은 2009년 포장용 47%,

일반산업용 33%, 광학용 20%에서 2010년에는 포장용 30%, 일반산업용(태양광용 포함) 40%, 광학용 40%로 포장용 비중이 줄어든 반면 광학용과 태양광용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내포장용 PET필름 시장은 2010년 내내 공급부족이 계속됐다.

중국 등 아시아의 포장용 PET필름 수요가 10%이상 증가했지만 세계적으로 신증설이 전무했고,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들이 광학용 라인 확대로 포장용 PET필름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포장용 PET필름의 공급부족은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해외 포장용 PET필름 생산기업들이 노후화된 플랜트를 가동중단한 것도 공급부족을 부추겼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PET필름 공급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승인더스트리는 국내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비중을 확대하면서 시장 대응에 적극 나섰다.

화승인더스트리는 SKC, 도레이, 코오롱 등이 광학용에 집중함에 따라 포장용 공급이 줄어들자 수출을 줄이는 대신 내수 공급을 확대해 국내 공급부족에 적극 대응하였다.

화승인더스트리의 PET필름 공급비중은 내수 70%, 수출 30%수준으로 알려졌다.

포장용은 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해 광학용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용 PET필름은 공급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는데 과거에는 광학

용과 포장용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컸으나 최근에는 광학용 PET필름가격의 80% 수준까지 근접하게 됐다.

2011년에는 포장용 PET필름 공급부족이 다소 완화 돼 하반기부터 포장용 내수가격이 kg 당 300~500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포장용 PET필름 생산기업이 재가동에 나서고, 중국의 신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공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포장용 PET필름 생산기업들은 수요증가율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증착포장 필름이나 연포장재 대신 열 수축 필름으로, 화승인더스트리는 증착포장필름 라인을 매각하고 스템프포일용이나 포장용에 집중하였다.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들이 포장용에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용도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가 가능한 핵심라인만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부가화 실현에 나서고 있다.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들은 2010년 3/4분기를 기점으로 판매량이 50% 이상 줄어들자 일부가 공급 부족이 계속된 포장용으로 생산라인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들어 PET필름 수요가 회복세를 보여 상반기까지는 일부 공급부족 현상이 재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2/4분기 이후 LCD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물론 하반기 들어서는 침체국면에 들어가 광학용 PET필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광



특 징

학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증설경쟁에 나서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9개 라인의 생산능력이 10만톤으로 2011년 하반기에 1개 라인을 증설한 후 1개라인 추가건설할 계획이다.

SKC는 16개 라인의 생산능력이 15만톤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수원 소재 1개 라인을 가동했으며, 추가로 2개 라인을 증설해 7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 2개 라인 건설 등 PET필름 총 생산능력을 2015년까지 3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C는 광학용과 태양광 백시트 시장의 성장세가 계획될 것으로 보고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광학용과 태양광 백시트용 시장 집중을 통해 그린소재 컴퍼니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레이첨단소재도 9개 라인에서 11만3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T필름 시장은 2013년을 기점으로 공급과잉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 효성 등 신규기업 진출과 기존 생산기업들의 꾸준한 증설로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호남석유화학은 울산 KP케미칼 플랜트에 2012년까지 2만톤 공장을 건설하고 2014까지 4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초원료인 MEG, PTA, PET제품으로 연결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효성은 광학용 PET필름 투자에 이어 산업용

필름에도 700억원을 투자, 울산 용연공장에 4만톤 생산설비를 건설해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나섰다.

효성은 신기술을 광학 · 산업용 필름에 적용해 전자소재 필름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PET필름 시장에서는 공급과잉 가능성과 함께 신규기업들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료부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신규기업들이 진출한다면 가격이나 수급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승산이 있다는 입장과 신규기업들이 과연 물성 구현이 쉽지 않은 광학용 PET필름을 생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광학용 PET필름은 포장용과 달리 수요기업들의 Spec을 구현하기가 까다롭고 워낙 기존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화학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PET필름 시장은 2013년을 기점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혈경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PET필름 시장은 가격상승세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계속됐다.

2010년에는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MEG, PTA 등 원료가격 급등이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PTA 가격은 2010년 4월 CFR China 톤당 975달러, 5월 941달러, 6월 839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7월 850달러, 8월 879달러로 반등에 성공해 11월 1151달러, 12월

1191달러, 2011년 1월 1357달러를, 3월 1515달러, 5월 1219달러, 7월 1185달러, 8월 1285달러를 형성한 후, 10월 1162달러로 하락했다.

MEG 가격도 2010년 12월 1050달러에서 2011년 1월 1174달러로 급등한 후 3월 1224달러, 6월 1231달러, 7월 1211달러, 9월 1276달러로 강세를 지속했으나 10월 1184달러로 하락했다.

MEG는 폴리에스터(Polyester) 수요 호조와 함께 타이완 Nanya Plastics이 안전문제로 178만톤 플랜트를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해 이례적으로 수급타이트를 연출한 것이 강세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 대부분이 2011년 8월까지 원료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장용 PET필름은 2010년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이 계속됐지만 2011년에는 원료가격 상승이 최대 변수로 작용했으며 2010년에 비해 원료가격이 50% 이상 높아져 PET필름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포장용 PET필름 내수가격은 2011년 1/4분기까지 kg당 3500~4500원을 형성했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아짐에 따라 2/4분기를 기점으로 원료가격 상승분을 전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원료가격 상승으로 포장용, 광학용 PET필름 생산기업과 수요기업 모두가 연쇄적으로 수익성 부담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장용 PET필름 생산기업들은 수요기업들이

영세하고, 광학용 PET필름 생산기업들은 수요기업들이 분기별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격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포장용이나 광학용 PET필름 수요가 좋아 수익성이 양호했지만, 2011년에는 원료가격이 급등했지만 다운스트림들이 가격인상을 쉽게 수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코스트 반영이 어려워 2011년에는 PET필름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됐다.

국내 나일론필름 시장은 자강산업 하니웰의 9천톤 공장을 2009년 말 인수한 뒤 2010년 1월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코오롱, 효성과의 3파전으로 경쟁이 치열해 졌다.

코오롱과 효성의 양강체제 속에 후발주자로 뛰어난 자강산업이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강산업은 원래 OPP 필름 생산기업으로 하니웰이 소유하고 있던 나일론 필름 2개라인을 인수한 후 1개 라인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필름시장 자체가 포장용에서 산업용으로 수요가 쏠림에 따라 나일론필름 시장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또 국내 나일론 필름 내수가격이 떨어진데다 자강산업의 거래처 확보와 가격변화 등에 관련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나일론필름 생산능력은 코오롱인더스트리 7천2백톤, 효성 7천8백톤, 자강산업 9천톤으로 모두 2만4천톤에 달하고 있다.

올해 나일론 필름시장 역시 경기 침체 여파로 판매가 줄어들고 가격인하 요구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K]